

다산포럼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미스터 션샤인과 호락논쟁

‘호락논쟁’이었다. 호락논쟁은 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당시 주류였던 노론(老論) 내부에서 일어난 학술 논쟁이었다. ‘호’ (湖)는 충청도를 의미했다. ‘낙’ (洛)은 서울을 의미했다. 중국 낙양(洛陽)의 ‘낙’과 같은 단어이다. 충청도 지역 노론과 서울 지역 노론의 학술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호락논쟁은 마음(未發之心)을 다루는 성리학 논쟁이지만, 국제 관계나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야기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인간의 본성과 물(物, 사물 또는 동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성인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등이 그것이다.

호론은 인성과 물성, 성인과 범인을 구별했다. 그 연장선에서 중화와 오랑캐를 구별하고, 신분의 차별을 인정했다.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고(人物性同論), 성인과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 같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오랑캐로 경원시했던 청을 공존할 수 있는 상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인도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등적 신분 질서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념의 나라 조선에서는 이론적 차이가 정치 투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었다. 당대의 군주였던 영조와 정조는 현

명하게도 논쟁과 거리를 두었다. 따라서 호락논쟁은 권력 투쟁의 구실로 작동하지는 못했다. 한편 실심·실용·실천을 강조하는 인사들은 호락논쟁을 외면했다.

중세적 차별론을 전복하는 발상은 당현 흥대용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의산문답’에서 ‘화이일야와 ‘인물균’ (人物均) 사상을 주장했다. 화이일야론으로 ‘화(중화)’와 ‘이(오랑캐)’의 대립 틀 자체를 부인했다. 또한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물’이 한가지라고 주장하여, 본질적 차이로 엄별하는 것이 실은 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파악했다. 흥대용은 충청도 노론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낙론의 중심인 서울 근교 석실 서원에서 공부했다. 그는 노론의 당론에 감하지 않았는데, 그가 걸친 자세는 ‘공관병수’였다. 공정하게 보고 아울러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정조 사후 안동 김씨 가문의 집권으로 귀결되었듯이, 호론은 정치적으로 패퇴했고, 낙론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낙론 인사들은 지위엔 안주할 뿐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결국 논쟁은 사회를 이끌 동력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분별

과 배제의 논리는 여전히 고고했다. 오히려 투쟁 국면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했다. 외세를 오랑캐로 간주하고 투쟁의 논리를 세운 위정척사파가 의병 활동의 초기에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양반과 상민의 분별은 민족이란 분별로 바뀌었다. 민족은 우리에게 아직도 감동적이다. 그렇지만 근대 민족의 이름으로 인류는 이미 엄청난 재앙을 겪었다. 그런 분별과 배제의 논리가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세계주의의 추종이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여 스스로의 무장을 해제하게 되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제의 일만은 아니다. 어떻게 주체성을 견지하면서도 세계와 함께할 것인가. 이는 상대적 차이와 공존을 인정할 흥대용 사상이 답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열린 사평 모임에 참석했다. 이경구 교수의 ‘조선, 철학의 왕국’ (부제: ‘호락논쟁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다. 책은 잘 읽혔다. 논쟁의 개요를 적절한 소개하면서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게 논쟁 안팎의 이야기를 적절히 교차시켜 준 필자의 요령이 돋보였다. 이 글은 그 독후감이라 할 수 있다.

교단에서

소년 통고제



김진우
일신중 교감

희망의 샘물은 어느 정도 고였을까. 민수는 김장 무를 뽑아 나르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이맘때 민수 외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처음이니 1년 만에 만난 셈이다.

상담실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놓고 마주 앉았다. 반갑다는 인사가 서툴러서 쪽스러워했지만 대화는 술술이었다. 밥을 용이도 상당했고, 지도 교사에게 개인 사건도 자랑했으며, 모범생으로 선정되어 베트남까지 다녀왔다고 했다. 여행 가이드(베트남 여행의 영향인 듯), 직업 군인 등 진로에 대해서도 먼저 꺼냈다. 차라리 소년원으로 보내주라고 대들던 천방지축은 아니었다. 핏덩이 때부터 외조부모가 키운 민수는 친권을 포기한 얼마 아이라고 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세 번 재혼하여 동생이 4명인데 또 네 번째 새 아빠가 타났기에 동생이 몇 명이나 늘어날지 모르겠다고 한숨이었다. 탕수육은 식여가고 짜장 면발은 굳어갔다. 소년원의 분류심 사정을 두 번이나 위탁되었고, 이에 낙심한 외할아버지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민수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A공고 1학년이다. 지난 3월 초에 한번 등교하여 담임 선생님 잠깐 만나고 교과서를 받아 사물함에 넣고 나온 것이 학교생활의 전부이다. 반복된 비행으로 가정법원의 위탁 처분을 받아 희망생학교로 간 것이다. 열골조차 기억할 수 없는 학생이지만 A공고에서는 교과서를 보내주고, 시험지를 희망생학교로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이제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다. 사실 민수는 지난 10월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또 다른 비행이 있어서 보호자와 가정법원의 조치로 6개월 연장을 받아 내년 4월까지 희망생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소년 통고제’를 활용한 사례이다.

‘소년 통고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비행청소년 지도가 어려울 때 보호자나 학교장이 가정법원에 보호 처분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가출하여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비행이 반복되어 부모가 통제할 수 없고, 교사의 지도도 불응하는 경우, 학폭위원회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도에 한계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이다.

청소년 입장에서 부모나 학교장이 끝까지 보호해 주기는커녕 앞장서서 고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행 청소년을 배려하는 많은 장점이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건 내용이 수사 기관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범죄·수사경력 조회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지 않아 신속하게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 보호 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으며 전문가 상담, 화해권고 등으로 가·피해자 또는 보호자와 학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서류로 접수하거나,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구두로도 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잘 설명하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며 결과도 좋았다.

테라사 수녀님은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꺼안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이라고 했다. 이번 방문은 민수 외할아버지를 대신한 이승의 만남이었다.

민수는 면회가 끝나고 돌아서는 나를 수줍게 부르더니 고마움의 표시로 무 몇 개를 주었다. 단물이 나올 것 같은 황토 물은 무였다.

기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양훈
수필가·현대문예작가회 회장

망적이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떠도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낙원이 아니라 점점 더 사막과 광야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이제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생명이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생명의 자리에는 돈과 권력이 자리 잡아 생명을 현실팩 취급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점점 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물질의 풍요 속에 생명은 시들어 가고 무덤덤해진 채 희망 없는 삶을 유지해 가고 있다.

광야와 사막으로 황폐해져 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시는 창조와 질서의 신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본시 창조자는 세상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다. 사람까지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의 힘(能)도 주셨다. 인간은 이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많은 문화를 창조해 왔다. 물질 문명, 정신 문화는 물론 사회 제도, 법 등 다 창조자의 마음으로 이룩한 인간의 역사이다. 이 아름답고 선한 세상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채 점차 악에 물들기 시작하여 이제

결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하는 비명이 세상의 모습이다.

인간 사회에는 시기와 분쟁과 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서로가 악을 만들고, 죽이고 싸우는 질곡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재촉한 것은 산업 사회다. 산업 혁명이 곧 산업 사회 형성으로 인간의 삶의 구조와 의식 구조를 강풍이 몰아치듯 바꾸어 놓았다. 처음엔 인류의 가난을 해방시켜 줄 수호신처럼 추종했다. 산업 사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이 ‘소유’가 결국 인간에게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소유’가 좌우한다. 이에 신의 자리까지 승격시켜 하늘의 우상으로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졌다.

인류가 가진 재화는 무한한 것이 아니다. 이 한정된 것을 나누어 가지려하니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의 대열에서 점차 앞으로 달리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이 분리됐다.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자로 나누어졌다. 이런 세상은 ‘나’만이 존재할 뿐. 행동의 동기는 오직 이윤 추구에서 인력만이 생의 목적이 되며 부의 추종과 수용만이 우리의 할 일인양 여기게 되었

다. 이렇게 살게되니 인간의 성격은 변화되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죽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착취성 인간, 자유 경쟁으로 인한 철저한 개인주의자, 인간의 심성을 물욕으로 가득 차게 하고 ‘나’만이 미덕이 아닌 ‘소유’가 미덕이 되고, 가진 자가 횡포를 자행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인류가 스스로 정만한 죽음의 문턱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가 함께 가는 죽음의 행렬이다. 사랑이나 소유하고픈 마음이나 다 애뜻하고, 연민이고, 이해하고 내게 소중한 심정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왜 ‘사랑’은 생명력을 불어 넣고 ‘소유’는 그 생명력을 죽이게 되는가. 현재 우리는 ‘사랑’이나, ‘소유’하는 이중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감히 ‘소유’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사랑은 창조자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소유’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자유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만이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이다. 겨울이 길어도 눈이 있고 긴긴 밤이 있고 이웃이 있어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연시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어 올해도 따뜻한 정을 발견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이다.

社說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 의혹 철저한 규명을

본보는 몇 차례에 걸친 기획 연재로, 광주시가 지난 2016년 맥쿼리와 체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 협약’을 둘러싼 의혹을 해부하고 있다. 광주시가 유리하게 진행되던 소송 중에 갑작스럽게 협상 결과 수백억 원대 합의금에 법인세까지 내주기며 해 재정 절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를 통해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해 온 맥쿼리에 대해 지난 2011년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맥쿼리 측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금리 차입금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기는 바람에 재정 지원금이 급증해서다. 이에 불복한 맥쿼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시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시는 민선 6기 들어 협상을 병행키로 하고 2016년 맥쿼리와 변경 협

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최소순영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하는 대신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을 선택했지만 투자자조차 변경하지 않고 자본구조도 그대로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맥쿼리의 논리에 휘둘려 369억원의 합의금을 내놓았고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법인세 345억 원까지 내주기로 했다고 한다. 투자금 2341억 원에 대해서는 9.8%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었다. 재정 절감액도 101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맥쿼리가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를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소개했고 광주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사실은 협약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협약 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맥쿼리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끝내 물 건너가나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기국회 폐회 무렵까지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올해 안에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 무산은 자유한국당이 시종일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유총의 후원금 조끼가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양쪽이 공생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판인데 한유총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다. 한국당은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유치원 3법이 발의되자 자체

안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더니 이후 사립 유치원의 사적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건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명분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학부모 부담금을 유치원 원장이 제 주머니돈처럼 써도 된다는 얘기가 다음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처벌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유치원 3법 개정 취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가 낸 돈을 원장의 성인용품과 명품백 따위를 사는 데 유용하는 등 사립 유치원 운영 비리 백대에 유치원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모두 얼마나 분노했던가.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아직 ‘12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당은 ‘유치원 3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서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덕수궁(德壽宮)은 조선의 세조 임금 이며느리 수빈 한씨와 그 소생인 월산군·자을산군·명숙공주의 기거를 위해 마련해 준 사저였다. 당시 요절한 의경세자의 아내인 수빈 한씨는 궁중법도며 따라 궁하게 됐다. 이후 자을산군이 성종이 되자 수빈 한씨도 인수대비로 대궐로 돌아오면서 이 집은 월산대군 소유가 된다.

덕수궁은 임진왜란 후 몽진에서 돌아온 선조가 이 터적을 개조, 임시 거처인 정동행궁으로 사용하면서 처음 궁궐이 됐다. 이후에는 창덕궁

덕수궁 돌담길

중건 이후 잊혀졌다가, 일본의 공격에 위협을 느끼고 아관파천을 했던 고종이 1897년에 이곳으로 돌아오면서 재단장해 10년간 대한 제국의 황궁으로 사용됐다. 덕수궁이란 이름은 1907년 고종 퇴위 후에 생겨났으며 그 전에는 경운궁으로 불렸다.

이 덕수궁은 주변 돌담길로도 유명하다. 정동길로도 불리는 이 길은 도심 속 걷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꼽힌다. 아름다운 풍경이 인근의 많은 문화 시설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 있는 거리였다. 수많은 드라마와 소설 및 노래에도 자주 나오는

데, 연인들이 이 길을 걷고 나면 헤어진다든 소문이 있었다. 이는 옛날 이곳에 이혼 판결을 하는 가정법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덕수궁 돌담길(총 1.1km)이 지난 7일부터 전면 개방됐다. 서울시가 그동안 출입을 통제했던 주한 영국 대사관 정문부터 직원 숙소에 이르는 70m 구간을 개방한 것이다. 덕수궁담장 바깥쪽이 영국 대사관 소유여서 담장 안쪽으로 새 길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부터 덕수궁 돌담길을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 8월 영국 대사관이 1959년부터 점유해 온 대사관 후문 쪽 100m 구간을 반환받아 개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은 구간을 연결했으니 59년 만에 덕수궁 돌담길 전 구간이 이어진 셈이다.

이 아름다운 돌담길은 또한 아픈 역사를 머금고 있다. 국권 침탈을 노골화한 일본 제국의 고위 인사들이 이 길을 거쳐 대한 제국의 황제를 감박하러 갔던 것이다. 을사조약 현장인 중명전 역시 이 길을 거쳐야만 갈 수 있었다. 돌담길을 걸으며 아픈 우리의 역사를 되새긴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급 220-0515	문화사 일급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